

대학생의 진로 결정과 진로 선택 동기, 진로 역량의 인과적 관계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Motivation for Career Choices, Career Capabilit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김은정¹⁾, 이태원²⁾, 성행남^{3)*}

(EunJung Kim, Taewon Lee, and Haengnam Sung)

요약 대학생 시기에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 및 진로 결정의 구조적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소재 4년제 D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총 326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25와 AMOS 25를 이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첫째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각각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는 진로 결정 구성 요인인 진로 결정 구체성과 진로 결정 확신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를 매개하여 진로 결정 구체성과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진로 결정의 구체성과 확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성찰 역량과 진로 관리 역량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확실한 고용환경의 변화와 높은 청년 실업률과 함께 직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대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에서의 진로 상담과 진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진로 결정, 진로 역량, 진로 선택 동기, 대학생, 진로 교육

Abstract Establishing career goals and making a career choice is the most crucial task fo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otive of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apabilitie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order to provide basic materials that can assist college students i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o do thi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D university in Busan. A total of 326 survey respon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5 and AMOS 25.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were found to affect career consideration and career management capabilities, respectivel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areer consideration and career path management capabilities influenced both concreteness and confidence, which are elements of career decision-making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affected concreteness and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with career consideration and career management capabilities as parameters. These findings imply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concreteness and confidence in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ir career consideration and career management capabilities. As the unemployment rate of youths rises and the types and specialization of jobs increase amid uncertainty in the future employment conditions, undergraduate students face increasing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mak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which will assist in career path consultation and guidance in universities.

Keywords: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capability,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haena@gnu.ac.kr
Manuscript received July 21, 2021 / revised August 22,
2021 / accepted August 23, 2021

1)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제1저자
2)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BK21 디지털금융 교육연구단, 제2저자
3)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신저자

1. 서론

학력이 능력을 대변하지 못하는 불신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많은 실직자가 양산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An and Moon, 2014). 취업난을 겪는 대학 졸업자들과는 달리 기업과 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 및 산업체에서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더는 취업 보장이 되지 못하면서 대학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대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Iem and An, 2018).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COVID-19의 범유행 현상은 IMF 사태와 비견할 만큼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되었으며, 비대면 상황으로 인한 채용 시스템의 변혁까지 가져옴으로써 대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Kang, 2020). 청년실업 문제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직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휴학, 졸업 유예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 어학연수, 인턴 등의 취업 준비에 힘쓰고 있다. 대학생들은 사회인으로서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Ku et al., 2020). 대학생들이 좁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조기 퇴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퇴사의 가장 큰 이유로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를 꼽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직업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시사된다(Lee, 2017). 이처럼 계속되는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은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중요성과 취업 준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진로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된 체험으로 대학생 시기는 진로 선택과 구직 활동에 결정적 시기다. 대학생은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급변하는 고용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

로를 선택하지 못하여 적합한 진로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더 어려워진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진로 개발에 있어 역량을 강조하는 진로 역량 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Kang, 2020). 대학은 노동시장 수요에 기반한 진로 지도의 필요성 제기와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역량의 강화에 대한 이견도 많지만, 사회적 흐름을 피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Lee et al., 2020). 진로 교육에 있어 역량 기반의 관점은 단편적인 정보획득, 일회성 진로 결정을 목표로 하던 기존의 진로 지도 방식과는 달리 행동과 가치, 태도의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Lim, 2008). 대학생의 진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취업 교육의 방향과 필수 역량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과 함께 지속해서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로 역량과 진로 관련 변인과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신입생의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충분히 탐색할 기회 없이 입학한 경우가 많아 대학은 신입생부터 진로 개발 및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 어떤 핵심역량들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 및 피드백, 지원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Bang and Cho, 2019).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동기(motivation)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Noh and Lee, 2021). 대학은 대학생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대학생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Sung et al., 2021). 앞으로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불확실성이 높고 직업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책임지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지속해서 부여하는 힘이 필요하다(You and Song, 2017). 진로는 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진로 선택 동기에 기인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로 성공을 위해 진로 동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역량과 연계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대학

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 동기와 진로 역량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은 거의 없었다(Pang and An, 2019). 진로 동기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제한적이며, 진로 동기와 진로 역량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진로 동기의 하위변인인 진로 정체감, 진로 탄력성 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 동기의 하위변인으로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진로 변인 중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결정 간의 관계에서 진로 역량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은 성인기로의 전환 및 직업 선택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청소년 시기에 형성한 자기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구체화하게 되는 시기이다. 개인이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수준, 가치관, 능력 발휘의 기회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진로 결정과 직업 선택은 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다(Hwang and Lim, 2015).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결정들에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포함되며,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발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Tolbert, 1980). 이처럼 대학에서 대학생의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을 위한 준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 및 진로 결정 수준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 및 대학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 결정

진로는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 내리는 결정들로 이루어지며, 직업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 중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면서 생애에서 직면하는 중대하

고 실제적인 문제이다(Koh, 1993). 대학생 시기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립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능력, 직업의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진로 결정(career decision)은 개인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위하여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준비로서, 직업 세계에서 안정과 성공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Lopez and Ann-Yi, 2006). 이러한 진로 결정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로 진로 의사결정, 진로 결정 수준, 진로 결정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Lee, 2020). 초기 진로 결정 관련 연구들은 진로 결정을 왜 하지 못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진로 결정과 진로 미결정이라는 단순 이분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진로 결정의 어려움은 낮은 동기, 우유부단함 등의 준비 부족과 진로 의사결정 과정, 진로 이해, 직업 이해, 정보획득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불확실한 정보, 내·외적 갈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진로 목표 부재, 전공에 대한 갈등, 진로 미결정 등은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진로에 대한 갈등과 미성숙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실업과 잦은 이직 등으로 손실을 초래한다(You and Song, 2017).

Kim and Kim(1997)은 진로 결정 수준을 진로 결정과 진로 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여,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대학 졸업 이후 일과 관련한 진로에 관한 결정과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바람직한 진로 교육을 통하여 진로 설계의 계획이 장시간에 걸쳐 진로 발달로 이루어진 결과,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가 진로 결정이다(Kim et al., 2016). 진로 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Lee, 2020).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2010년 이후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진로 결정 수준을 유효하게 측정, 선별하고 분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진로 결정과 미결정의 연속선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진로 결정의 속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Lee, 2020). Lee(2011)는 진로 결정과 진로 미결정은 하나의 선상에서 양극단에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하위개념을 갖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 결정은 진로 결정의 속성이 높고 낮은 정도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이다. 진로 결정의 구성요인으로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수립된 정도인 구체성,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믿고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확신성으로 구성하였다(Lee, 2020). 진로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에 대해 잘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과 노동시장 정보를 획득하여 특정 진로 경로로의 진입에 대해 불안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Choi, 2019).

2.2 진로 역량

심리학에서 유래되어 기업과 공공기관 및 학교 등 각종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는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진로 개발 분야에 적용되어 진로 역량 혹은 진로 개발 역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Park, 2009).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수행 능력이라는 역량 개념에 기반하여 진로 역량(career competencies)으로 정의되고 있다(McClelland, 1973; Arthur et al., 1999; Jeong, 2017). 진로 역량이란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애 목표를 설정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자신을 조율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Jeong, 2015). 학문 분야와 관점에 따라 개념적 접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진로는 개인의 발달 맥락과 직업 세계의 사회적 환경 맥락이 함께 작용하는 특성에 기반하고 지속적인 경험의 과정이면서 축적되는 특성이 있다(Jeong, 2017; Bang and Cho, 2019).

대학생 시기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진로 로드맵에 따른 진로 준비를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Bang and Cho, 2019). 직업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하며 미래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진로 역량이 필요하다(Lee, 2020). 이를 위해 대학생은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고용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학은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의 진로 결정을 도와 성숙된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관련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역량을 진로 성찰 역량과 진로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 성찰 역량은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인식하고 진로 방향성과 진로 목적을 지속해서 성찰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진로 관리 역량은 역량 개발에 힘쓰며,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역량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진로 성찰 역량과 진로 관리 역량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지속해서 관리·개발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2.3 진로 선택 동기

동기(motivation)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과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하려는 힘의 총합으로 그 행동의 방향, 수준 및 강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chunk et al., 2008). 동기는 보편적으로 목표지향적 행동을 일어나게 하고, 유지 시키는 과정이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하는 것은 진로를 개발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Pang and An, 2019).

Lee(2011)는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여 지속해서 진로를 개발하려는 태도를 진로 동기로 보았다. An and Seo(2013)은 진로 동기에 대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심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Kang(2016)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과 개인의 삶에 대한 도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추구하려는 태도와 의지라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의 근간을 준비하는 정체성과 개성을 찾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한다(Jeong, 2017). An and Moon(2014)은 진로 선택 동기가 단기적인 특정 사건이나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넘어 진로 단계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복잡하고 무질서한 상황에서 본질을 발견하고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근본적인 동인이라 하였다.

진로 선택 동기의 구성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는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동기로서, 개인의 만족감, 성취감, 긍정적인 감정 상태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동기로서 타인으로부터 인정, 금전·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Jeong, 2017). 진로 선택에서 외재적 동기는 취업의 용이성, 높은 수입, 사회적 지위 보장, 발전적 전망 등을 들 수 있다. 내재적 동기 이론에 의하면 행동에 대한 통제 위치가 내부적이라고 지각하거나 행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일 경우 내재적 동기가 증가한다고 하였다(Kruglanski, 1975). 1970년대에 시작된 내재적 동기의 연구는 어떤 활동의 ‘과정’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외재적 동기는 반대의 개념으로 ‘결과’를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특정 일이나 활동에 있어서 그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행동 그 자체가 보상되고, 즐거움이 되고, 성취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 결정 관련 내재적 동기는 진로 자체에 대한 흥미, 배우는 즐거움, 새로운 것을 창조할 기회 등을 반영하는 무형의 보상인 진로 결

정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내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외부의 강압이나 보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재미나 도전을 위해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외재적 동기는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와 독립된 결과를 향한 유인을 의미한다.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선택에 따른 임금, 안정성, 복리후생, 업무 환경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의미한다(Herzberg, 1966).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 동기는 대학생 자신의 내부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동기와 외부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외재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흥미, 관심 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과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흥미를 나타낸다(Kim et al., 2019). 외재적 동기는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적 보상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에 기반하여 대학생의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 진로 결정 간의 관계를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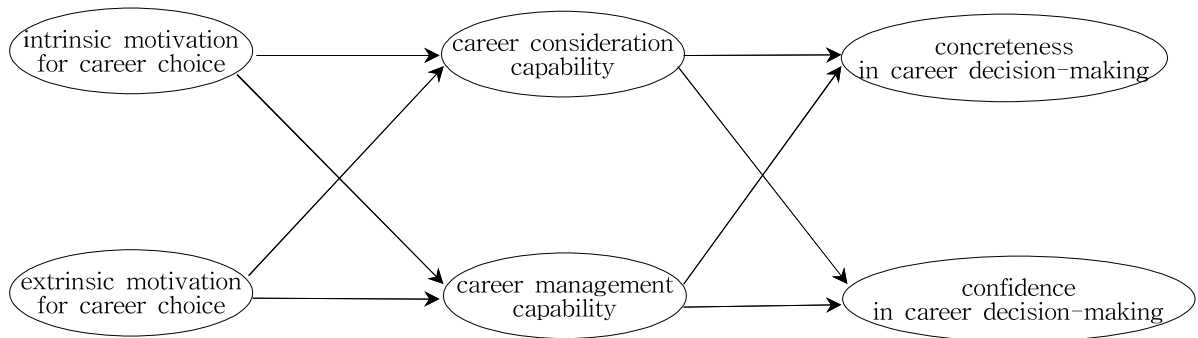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동기(motivation)는 각성과 방향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과정과 목표지향적이고 자발성을 가진 행동의 지속이다(An and Moon, 2014). 개인이 특정

과업에 노력을 시작하고 확장하게 하며, 그러한 노력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결정 요인이다(Cambell and Pritchard, 1976). 이러한 동기는 행동의 방향, 강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잠재력과 환경적 차이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수행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진로 동기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지속해서 개발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Bang and Cho, 2019). 동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떠한 형태의 행동으로 옮길 때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얻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 행동을 언제 시작할지, 얼마나 지속해서 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행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 역량이 단순히 취업이 임박하여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거나 취업 스킬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An and Moon, 2017). 개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흥미와 관심 때문에 한다면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것이고, 그에 반하여 외부적 목표의 수단으로써 인식한다면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재적 동기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행위가 유발되는 것으로 돈, 명예 등의 외재적 보상을 통한 결과에 만족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진로 역량 중 진로 성찰 역량은 '나는 왜 일을 하는가'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동기와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Jeong, 2017; Pang and An, 2019). 이는 진로 선택 동기와 관련이 있다. Collard et al.(1996)은 진로 동기를 활용하여 개인이 학습을 지속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Kang and Hwang(2013)은 진로 동기가 단순하게 취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 취업 이후 개인의 전문성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기란 특정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힘으로 정의되고 있다. 주어진 일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과업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좀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로 심리학자들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내적 기제로 내재적 동기에 주목해왔다. 내재적 선택 동기는 행위 자체로 인한 즐거움 등으로 행위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재적 선택 동기가 증가하면 진로에 대한 성찰과 관리의 진로 역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Deci and Ryan(2002)

은 내재적 동기가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는데, 즉 진로 결정 관련 내재적 동기는 돈, 명예 등 외적 보상이 아닌 관심 있는 진로 자체에 대한 흥미,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반영하는 무형의 보상인 진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Deci and Ryan, 2002).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진로 결정 관련 내재적 동기가 클수록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등의 진로 발달이 촉진된다(Guay, 2005).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 재학 중에도 진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진로 분야의 직업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직업의 안정성 등과 같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대학생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와 진로 성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함으로써 진로 동기는 진로 역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 H1-a :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1-b :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2-a :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2-b :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진로 역량은 개인이 진로를 개발 함에 있어 필요한 역량으로 삶의 지향점 설정과 진로 결정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 가치, 성향, 기술,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경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yu and Lee, 2012).

진로 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시기는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를 구체화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진로 현실기다(Ginsberg et al., 1951). 이 시기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진로 맵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Kim and Kim(2011)은 자신의 진로 결정을 위해 직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직업에 대해 이해해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Kim(2019)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직업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탐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avickas et al., 2018).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3-a :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은 진로 결정 구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b :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의 진로 결정 구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a :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은 진로 결정 확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b :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의 진로 결정 확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연구 변인에 대한 측정은 자기평가 기재법에 의해 설문 도구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3인에게 설문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설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1=강한 부정, 5=강한 긍정)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조사의 척도는 타당성 보장을 위해 선행 연구로부터 도출하였고, 총 27개의 측정 항목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 결정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로 구체성, 확신성의 구성요인으로 구체성 5개, 확신성 4개, 총 9개 설문 문

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성은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수립된 정도로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무, 직장, 진로가 있는 정도,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진로 목표가 있는 정도, 대학 기간 내와 대학 졸업 이후에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정도 등으로 5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확신성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믿고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결정한 진로를 유지할 것인지, 결정한 진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인지, 결정한 진로가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지 등으로 4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Lee, 2020). 본 연구의 매개 변수인 진로 역량은 삶의 지향을 설계하고 진로를 선택하며 선택한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기술, 가치와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의 구성요인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 성찰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지속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 진로와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연계하여 자신의 진로 목적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관리의 자신 이 희망하는 진로의 목표와 계획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학습 또는 경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한다. 진로 성찰 역량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도,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도, 내 진로에 있어 나의 열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정도 등 3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진로 관리 역량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정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정도, 자신이 관심있는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학습 또는 경험하며 준비하는 정도, 진로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의 목표와 계획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정도 등 5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Jeong, 2017).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선

택에 있어 자신이 선택한 특정 진로를 선택하게 된 원인이나 계기의 정도로,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의 구성요인으로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 6개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 4개로 총 10개의 설문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 정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 정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자신의 가치관과 잘 맞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해당 분야에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등 6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자신이 취업 후 취업이 유리할 것 같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졸업 후 급여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해당 진로를 선택하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진로를 선택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등으로 4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Lee, 2017).

4. 연구 방법

4.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소재 4년제 종합대학인 D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2020년 11월~12월에 걸쳐 총 5주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컴퓨터, 핸드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 누락된 응답을 제외한 총 32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했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등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측정 항목에 대한 집중타당성 검정을 위해 AMOS 25를 사용하여 합성 신뢰도(CR :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하여 AMOS 25로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통계적 유의 수준을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Kim et al, 2016).

4.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40명(42.94%), 여자 186명(57.06%)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 118명(36.20%), 3학년 101명(30.98%), 1학년 76명(23.31%), 4학년 31명(9.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121명(37.12%), 사회계열 108명(33.13%), 공학계열 63명(19.33%), 예체능·의학·자연계열 34명(10.43%)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진로 유형은 취업이 202명(6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59명(18.10%), 창업 23명(7.06%) 등으로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n=326)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y (Unit:event)	Weight (Unit:%)
Gender	male	140	42.94%
	female	186	57.06%
Grade	1st year students	76	23.31%
	2nd year students	118	36.20%
	3rd year students	101	30.98%
	4th year students	31	9.51%
Track	humanities track	121	37.12%
	social science track	108	33.13%
	engineering track	63	19.33%
	etc	34	10.43%
types of desired career	employment	202	61.96%
	startup	23	7.06%
	study, study abroad	15	4.60%
	government employees	59	18.10%
	Undefined	15	4.60%
Number of certificates	etc.	12	3.68%
	1	71	21.78%
	2	47	14.42%
	3 or more	29	8.90%
	none	179	54.91%

4.3 측정 모형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 요인과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 요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신뢰성은 동일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Table 2와 같이 6개의 구성개념의 Cronbach's alpha 값은 0.761~0.886으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7개의 측정 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가 $\chi^2/df=1.795(p=0.00)$, GFI=.887, AGFI=.862, RMR=.041, RMSEA=.049, NFI=.884, IFI=.945, TLI=.937, CFI=.945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개념 타당도는 모형 내 관찰 변인이 올바르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확인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복수의 측정 항목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표준화 계수가 0.5 이상,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요인별로 0.5 이상이거나 합성 신뢰도(CR : composite reliability) 값이 요인별로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Woo, 2012). 본 연구에서의 AVE 값은 가장 낮은 값이 0.533으로 기준을 만족하였고, 합성 신뢰도 값도 가장 낮은 값이 0.816으로서 0.7을 초과하였다(Kim and Kim, 2019). 따라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및 집중타당성은 Table 2와 같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각 관찰 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잠재변수 간

의 상관계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0.8을 초과하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Table 3에서 나타난 것처럼 0.8에 가까운 값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AVE 값과 상관계수 제곱 값(ρ^2)을 ($AVE > \rho^2$)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L :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부합치(CFI : comparative fit index)와 비표준부합치(TLI : tucker-lewis), 절대적 적합도 지수중 신뢰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모형의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Kim et al., 2017). CFI의 경우, 모형 오류는 측정하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RMSEA나 TLI와 같이 모형의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평가하며(Hong, 2000), RMSEA의 경우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평가한다(Hu and Bentler, 1999; Brown and Cudeck, 1993).

측정모형의 카이제곱(χ^2) 값의 유의수준(p)은 0.000으로 $p > 0.05$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 외의 적합도 지수 IFI, TLI, CFI, RMR, RMSEA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연구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에서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Table 4와 같이 확인하였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Variable	Item	Estimate	S.E.	C.R.	Std. Estimate	Cronbach's Alpha	AVE	Composite Reliability
in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IM1	1.000			0.798	0.886	0.683	0.928
	IM2	1.020	0.061	16.778	0.838			
	IM3	0.966	0.060	16.100	0.812			
	IM4	0.799	0.064	12.413	0.659			
	IM	0.901	0.070	12.964	0.683			
	IM	0.981	0.069	14.288	0.739			
ex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EM1	1.000			0.590	0.826	0.533	0.816
	EM2	1.116	0.123	9.066	0.634			
	EM3	1.354	0.127	10.693	0.825			
	EM4	1.460	0.134	10.878	0.873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CC1	1.000			0.613	0.761	0.662	0.853
	CC2	1.436	0.136	10.565	0.785			
	CC3	1.488	0.142	10.480	0.774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MC1	1.000			0.707	0.816	0.595	0.880
	MC2	0.938	0.088	10.687	0.656			
	MC3	1.008	0.084	11.933	0.740			
	MC4	0.751	0.075	10.083	0.616			
	MC5	0.918	0.079	11.618	0.718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CONC1	1.000			0.729	0.844	0.632	0.895
	CONC2	1.049	0.083	12.657	0.739			
	CONC3	0.923	0.075	12.307	0.718			
	CONC4	0.927	0.076	12.271	0.716			
	CONC5	0.945	0.078	12.144	0.709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CONF1	1.000			0.698	0.845	0.706	0.905
	CONF2	1.080	0.085	12.664	0.774			
	CONF3	1.087	0.085	12.793	0.783			
	CONF4	1.206	0.093	12.973	0.796			

Model Fit Indices: $\chi^2=554.778(df=309, \chi^2/df=1.795)$, GFI=.887, AGFI=.862, NFI=.884, IFI=.945, TLI=.937, CFI=.945, RMR=.041, RMSEA=.049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AVE	Composite Reliability
intrinsic motivation	0.826						0.683	0.928
extrinsic motivation	0.091	0.730					0.533	0.816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78	0.434	0.772				0.595	0.880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724	0.256	0.690	0.814			0.662	0.853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0.610	0.462	0.776	0.734	0.795		0.632	0.895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0.733	0.282	0.697	0.754	0.783	0.840	0.706	0.905

* Square root of AVE shown in bold (diagonal)

4.4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AMOS 25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구조 모형 분석 결과 음오차 분산이나 표준화 계수가 1을 초

과하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설검정은 유의수준 p-value 값이 0.05 이하, |t| 값이 1.96 이상이면 가설을 채택으로 판단하였다. 진로 역량의 경우,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성찰($\beta = .761, t\text{-value} = 10.789, p < .001$)과 진로 관리($\beta = .568,$

t-value=7.95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성찰($\beta=.219$, t-value=4.341, p<.001)과 진로 관리($\beta=.412$, t-value=6.706,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다중상관치(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진로 결정 수준 구체성은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에 의해 73.7%가 설명되며, 진로 결정 수준 확신성은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에 의해 72.1%, 진로 성찰은 내재적 선택 동기와 외재적 선택

동기에 의해 66.7%, 진로 관리는 내재적 선택 동기와 외재적 선택 동기에 의해 53.5%가 설명되는 것으로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latent variables	SMC	latent variables	SMC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657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0.737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35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0.721

Table 5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Hypothesis: Path			Std. Estimate	S.E	t-value	p-value	Results
H1-a	intrinsic motivation	→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761	0.071	10.789	0.000	채택
H1-b	extrinsic motivation	→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219	0.038	4.341	0.000	채택
H2-a	intrinsic motivation	→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68	0.050	7.950	0.000	채택
H2-b	extrinsic motivation	→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412	0.033	6.706	0.000	채택
H3-a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0.438	0.062	6.309	0.000	채택
H3-b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0.532	0.100	6.757	0.000	채택
H4-a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0.603	0.076	8.202	0.000	채택
H4-b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0.348	0.100	5.106	0.000	채택

Model Fit Indices:

$\chi^2=611.662(df=615, \chi^2/df=1.942)$, GFI=.876, AGFI=.851, NFI=.872, IFI=.934, TLI=.925, CFI=.933, RMR=.044, RMSEA=.054

4.5 연구모형의 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을 통한 매개(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 and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분해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Bootstrap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인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매개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Baron and Kenny, 1986). Bootstrap 기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Table 6과 같다. 해당 분석은 반복 수행 2,000번,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의 95% 신뢰구간에서 확인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Shrout and Bolger, 2002).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

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결정 구체성과 확신성의 관계에서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는 유의미한 매개효과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Testing of mediating (indirect) effects of research model

confidence level of 95%			
intrinsic motivation →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Lower	Upper	p<0.01
	.558	.713	
intrinsic motivation →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Lower	Upper	p<0.05
	.568	.732	
extrinsic motivation →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Lower	Upper	p<0.01
	.220	.401	
extrinsic motivation →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Lower	Upper	p<0.01
	.190	.357	

본 연구모형에서 진로 선택 동기가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와 전체 효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Effect decomposition of a research model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intrinsic motivation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761***	-	0.761***
extrinsic motivation		0.219*	-	0.219*
intrinsic motivation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68*	-	0.568*
extrinsic motivation		0.412*	-	0.412*
intrinsic motivation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	0.635*	0.635*
extrinsic motivation		-	0.315*	0.315*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438*	-	0.438*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32*	-	0.532*
intrinsic motivation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	0.656***	0.656***
extrinsic motivation		-	0.276*	0.276*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603*	-	0.603*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348*	-	0.348*

*** p < 0.001, * p < 0.05

진로 결정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은 총 효과이며, 총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나뉜다. 직접 효과는 진로 선택 동기 및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 간의 직접적인 경로계수를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진로 선택 동기가 진로 역량을 거쳐 진로 결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BC(Bias-Corrected Percentile)법을 통하여 직·간접효과와 전체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총 효과(p<0.05)와 직·간접효과(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4년제 D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동기가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발달과업과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에는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효율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Jeong, 2017). 대학들은 진로 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로 교육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의 진로 선택 동기, 진로 역량, 진로 결정과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를 독립변수로,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를 매개변수로, 진로 결정인 구체성과 확신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 결정과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동기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특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며,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진로는 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인 심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Bang and Cho, 2019).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인 내·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 요인을 추가하여 모델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과 중심의 '지식'교육에서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교육으로 바뀌면서 대학은 교과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에서 역량이 강조된 것은 오래되지 않아 역량과 진로 관련 변

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결정 간의 관계에서 진로 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내재적 선택 동기와 외재적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불확실성이 높고 직업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책임지고 스스로 진로에 대한 동기를 지속해서 부여하는 힘이 필요하다(You and Song, 2017). 진로 선택은 직무를 선택하는 행동의 근원이 적성, 흥미, 가치관 등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내재적이었는지, 직무의 이미지, 인기, 취업 전망 등의 외재적이었는지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진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동기 등을 파악하여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있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결정의 구체성과 확신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 행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대학에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사전에 측정하여, 그 수준에 따라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를 통해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동기를 높여주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는 진로 결정인 구체성과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를 통해 진로 결정의 구체성과 확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로 결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자신의 삶으로부터 느끼는 만족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가 진로 결정 구체성과 확신성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 선택 동기가 단순히 진로에 대한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뿐만 아니라 진로 의사결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진로 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몰입과 지속적인 진로를 개발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이러한 동기는 진로의 의사결정과 진로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개인이 어떠한 동기를 기반으로 진로를 선택했을 때 진로 결정 구체성과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대학생의 진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부산 소재 4년제 대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표본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의 범위, 지역별, 학교 특성별,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생 개인이 처한 환경 특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확대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문화적 배경 등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 감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 근로형태의 변화 및 교육기관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등은 오늘날 급변하는 직업 세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은 이러한 직업 세계의 변화, 고용환경의 변화, 채용 동향의 변화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진로 환경변화를 고려한 변수들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 응답자 자신의 지각에 기초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자기 보고식 측정은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 관찰 등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n, Y. J., and Moon, Y. K.(2014), The Effect of Career Motivation and Change Perception on Undergraduate Students Competen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3), 135-161.
- An, Y. J., and Seo, J. Y.(2013),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2), 634-643.
- Arthur, M. B., Inkson, K., and Pringle, J. (1999), *The New Careers: Individual Action and Economic Change*, Sage.
- Bang, H. W., and Cho, G. P.(2019), The Effects of University Freshmen's Core Competency on Their Career Motivation, Career Competencie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6), 443-465.
- Baron, R. M., and Kenne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won, M. W., and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lif.: Sage.
- Campbell, J. P., and Pritchard, R. D.(1976), Motivation Thory i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M.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IL : Rand McNall.
- Choi, Y. H.(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Clar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anning as Mediating Variables,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Cheonan, Korea.
- Collard, B., Epperheimer, J. W., and Sagin, D.(1996), *Career Resilience in an Changing Workplace*,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 Deci, E. L., and Ryan, R. M.(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NY : Rochester.
- Gins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and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uay, F.(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77-97.
- Herzberg, F.(1966), *Work and the Nature of Man*, New York, Crowell.
- Hong, S. H.(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u, L. Z., and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an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wang, J. H., and Lim, S. B.(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Employ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2), 87-105.
- Iem, Y. S., and An, Y. J.(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Career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3), 241-264.
- Jeong, E.(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llege Students' Career Competencie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7(3), 401-428.
- Jeong, J. E.(2017),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 Career Competenc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M. Y.(2020), The Analysis of Education Needs on Career Competency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3), 23-47.
- Kang, Y. S. and Hwang, S. K.(2013),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301-3309.
- Kang, Y. S.(2016),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Calling on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Y., Yun, A. S., and Shim, J. H.(2019),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Career Choice Motivation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 A Study on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95-104.
- Kim, B. W., and Kim, K. H.(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Kim, C. K., Lee, S. Y., Lee, Y. J., Jeong, J. J., and Choi, W. Y.(2016). *Theory and Practice of Conseling*, Hakjisa, Seoul, Korea
- Kim, E. J., Park, S. J., and Kim, J. W.(2016), A Study on Smartphone Acceptance for the Visually Impaired,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1(4), 79-94.
- Kim, H. J., and Kim, B. W.(2011), A Study about the Experiences of Job-Seeking Young Adults during the Career Determination Process on the Ground The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3), 785-810.
- Kim, J. W., and Kim, E. J.(2019), A Study of Chinese Student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and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4(4), 99-112.
- Kim, T. W.(2019),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Assessi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or Undergraduates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2), 47-78.
- Kim, Y. J., Kim, E. J., Kim, J. W.(2017), A Study on the Impact of CSV(Creating Shared Value) of Delivery Companies on Confidence and Intention to Use Delivery Service - Focused on Senior Parcel Delive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5), 85-100.
- Koh, H. J.(1993),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Ph.D.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ruglanski, A. W.(1975), The Endogenous-exogenous Partition in Attribution Theory, *Psychological Review*, 82(6), 387-406.
- Ku, Y. A., Park, S. J., and Ahn, S. S.(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2), 45-70.
- Lee, C. G.(2020), Development of the Career Competencie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 Lee, C. R.(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Intrinsic Motivation,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Ye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D. H.(2011), Roles of Career Barriers in Career Decision-Making: Predicting Variable or Moderating Variable, *Korea Journal of*

- Counseling*, 12(1), 59-80.
- Lee, H. J.(2011), The Role Career Motiv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7(4), 95-116.
- Lee, H. M.(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Future Time Perspective, Career Decision Social Relatednes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W., Lee, G. Y., and Kim, J. H.(2020),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and Job-related Subject and Service Program Experience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2(3), 79-107.
- Lim, E.(2008), Narrative Inquiry of High School Teachers on Career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1(3), 193-218.
- Lopez, F. G., and Ann-Yi, S.(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 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Noh, J. E., and Lee, B. M.(2021), A Study on Relation between Conversation with Parents and Learning Motivation: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Educations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7), 399-411.
- Pang, Y. H., and An, Y. J.(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Carrer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147-161.
- Park, K. Y.(2009),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Needs for the Competencies of Career Development in the Undergraduat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2), 181-198.
- Ryan, R. M., and Deci, E. L.(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Ryan, R. M., and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an Psychologist*, 55(1), 68-78.
- Ryu, J. Y., and Lee, Y. K.(2012), Influence of Adolescents' Career Perparation Behavior up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4), 99-116.
- Savickas, M. L., Porfeli, E J., Hilton, T. L., and Savickas, S.(2018), The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138-152.
- Schunk, D. H., Pintrich, P. R., and Meece, J. L.(2008),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3rd ed.). NJ : Prentice-Hall.
- Shrout, P. E., and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ung, H.N., Kim, E.J., and Lee, T.W.(2021), The Effects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Freshman and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22(2), 189-208.
- Tol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 Woo, J. P.(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cept and Understanding*,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 You, J. W., and Song, Y. H.(2017), Comparing

Latent Means on Job Competencies, Career Resilience, Career Insight, and Career Identity of Groups with and without Field Experienc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1), 181-200.



김 은 정 (EunJung Kim)

-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 석사
-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 박사

- (현재)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CSR, CSV, SCM, 핀테크, 정보시스템 성과



이 태 원 (Taewon Lee)

- 동국대학교 컴퓨터학과 공학사
-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 석사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현재)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BK21 디지털금융 교육연구단 연구교수

- 관심분야: 데이터마이닝, CRM, 빅데이터 분석, 감성분석, 기계학습기법, 딥러닝.



성 행 남 (Haengnam Sung)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박사

-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 관심분야: 경영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 e러닝, 빅데이터 분석